



즉시 배포용: 2017 년 8 월 28 일

ANDREW M. CUOMO 주지사

CUOMO 주지사, 100 곳의 와인너리와 농장 와인너리가 핑거 레이크스 지역에서 현재 운영 중이라고 발표

2011 년 이후 핑거 레이크스에서 31 곳의 새로운 와인너리 개장

지역사회를 활성화하고 경제를 성장시키기 위한 이 지역의 종합 전략인 “핑거 레이크스 포워드(Finger Lakes Forward)” 사업을 보완하는 투자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100 곳의 와인너리와 농장 와인너리가 뉴욕의 핑거 레이크스 지역에서 현재 운영 중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이 100 곳의 와인너리는 뉴욕에서 운영 중인 총 416 곳의 와인너리 중 약 25 퍼센트를 차지합니다. 이 성장은 지난 7 년 동안 뉴욕의 수제 음료 산업을 강화하고 지원해온 Cuomo 주지사가 기울인 노력으로 거둔 직접적인 성과입니다. 농업 관련 기업 지원 및 관광산업 장려는 핑거 레이크스 포워드 지역 경제 개발계획(Finger Lakes Forward regional economic development plan)의 핵심 부분입니다.

Cuomo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뉴욕의 와인 산업이 급성장하고 있다는 것은 비밀이 아닙니다. 이 전례 없는 성장은 이 분야를 강화하려는 우리의 노력이 그 성과를 얻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이러한 성장을 통해, 핑거 레이크스와 그 이외의 지역에서 수제 음료 산업은 지속적으로 관광 산업을 촉진하여 번창시키고 일자리를 만들어 내며 뉴욕주 전 지역에서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킬 것입니다.”

1976 년에 만들어진 면허를 획득한 뉴욕주 전 지역의 농장 와인너리 수는 2011 년 195 건에서 현재 333 건으로 70 퍼센트 이상 성장했습니다. 이 성장세는 주목할 만합니다. 처음 35 년 동안 뉴욕에서는 195 곳의 농장 와인너리가 운영되었습니다. 반면에 지난 6 년 동안 138 곳이 넘게 개장했습니다.

와인 정책을 변경한 덕분에 와인 인수지에스트(Wine Enthusiast) 잡지는 2014 년에 뉴욕주를 '올해의 와인 지역(Wine Region of the Year)'으로, 2015 년에는 핑거 레이크스를 '최고의 와인 여행지(Best Wine Travel Destinations)'로 선정했습니다. 핑거

레이크스 와인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것은 현재 와인 스펙테이터(Wine Spectator) 잡지가 연례 와인 평가에서 핑거 레이크스 지역을 열거하는 것으로 알 수 있습니다. 뉴욕 와인 및 와인 생산업체들의 세계적 수준의 품질에 주목하는 것 외에도, 와인 스펙테이터(Wine Spectator) 잡지는 오래된 규정을 업데이트하고 법을 현대화하며 농장 기반의 수제 음료 분야를 지원하기 위한 효과적인 마케팅 프로그램을 시작한 주지사를 높이 평가했습니다.

Cuomo 주지사의 지시에 따라 뉴욕의 와인 산업을 지원하기 위해 시행한 법규 및 규제 개혁은 다음과 같습니다.

좋은 와이너리 법안(Fine Winery Bill): 2011년 7월 22일, Cuomo 주지사는 와이너리에 대한 규제 부담을 줄이기 위한 법안에 서명했습니다. 이 법안에 따라 농장 와이너리는 최대 5개의 지점을 운영하고 문서 업무의 부담을 줄이며 자본 비용을 절약하고, 와이너리가 고객 맞춤형 포도 분쇄(custom crush)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허용함으로써, 와이너리는 더 많은 자선 행사에 참여할 수 있고 와이너리 면허 카테고리를 통합할 수 있습니다.

2012년 와인, 맥주, 증류주 서밋(2012 Wine, Beer and Spirits Summit): 2012년 10월 24일, Cuomo 주지사는 뉴욕주 최초의 와인, 맥주, 증류주 서밋(Wine, Beer and Spirits Summit)을 주최했으며 즉시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 뉴욕의 와인 산업을 지원하기 위한 변경 사항들을 이행했습니다.

- 동일한 제조업체가 같은 장소에서 복수의 면허를 보유할 수 있도록 허가,
- 수제 음료 제조업체들이 시음을 실시하면서 “병에 담긴 상품”을 판매할 수 있도록 허가,
- 연간 250 달러에서 125 달러에 이르는 제조업체의 생산 현장 외의 분점형 매장 판매에 대한 마케팅 허가 수수료 절감,
- 제조업체에 대한 면허 신청 요건 최소화,
- 문서 업무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와이너리 면허의 유효 기간을 1년에서 3년으로 연장.

로드사이드 파머스 마켓(Roadside farmers' markets): 2013년 9월 30일, 주지사는 로드사이드 마켓에서의 와인 판매를 허용하여 뉴욕주의 와인 판매 및 홍보를 촉진하는 법안에 서명했습니다.

2014년 와인, 맥주, 증류주, 사과주 서밋(2014 Wine, Beer, Spirits and Cider Summit)
2014년 4월 8일, Cuomo 주지사는 두 번째 수제 음료 서밋(craft beverage summit)을 개최하고 즉시 와이너리를 지원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변경 사항들을 즉시 이행했습니다.

- 면허를 얻기 위한 농장 와이너리 면허 소지업체의 1,000 달러 계약 이행 보증서 취득 요건 폐지,
- 이웃 와이너리 제품을 시음 및 판매 행사장에서 판매할 수 있도록 허용하여 농장 와이너리의 비용 절감.

뉴욕 수제 음료법(New York Craft Act): 2014 년 11 월 13 일, Cuomo 주지사는 2014 년 12 월 13 일에 발효된 뉴욕 수제 음료법(NY Craft Act)에 서명했습니다. 이 새로운 법은 제조업체에 대한 요건을 줄여서 뉴욕주의 성장하는 수제 음료 산업에 대한 지원을 지속하고 수제 음료 제품의 마케팅과 관련하여 다음을 포함하는 제한 사항들을 이전 수준으로 되돌립니다.

- 농장 와이너리의 연간 생산 한도를 15 만 갤런에서 25 만 갤런으로 증가시킨 소규모 제조업체에 대한 생산 한도 증가,
- 모든 제조업체들이 제조한 알코올 음료를 별도 면허 없이 병 또는 잔으로 시음 실시 및 판매하는 것을 허용;
- 술잔으로 기타 알코올 음료를 판매할 수 있는 면허를 얻기 위해 제조업체가 반드시 충족시켜야 하는 식품 요건을 낮춤.

2015 년 와인, 맥주, 증류주, 사과주 서밋(2015 Wine, Beer, Spirits and Cider Summit): 2015 년 10 월 7 일 Cuomo 주지사는 주정부의 세 번째 와인, 맥주, 증류주, 사과주 서밋(Wine, Beer, Spirits and Cider Summit)을 개최하고 와이너리를 지원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변경 사항들을 즉시 이행했습니다.

- 주정부가 100 만 달러의 관광산업 진흥금 및 100 만 달러 규모의 타깃 광고 캠페인을 통해 이 산업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직접 지출 비용으로 200 만 달러를 투입하여 2014 년에 처음 시작된 마케팅 및 홍보 공약을 재개하기 위해 500 만 달러 투자,
- 뉴욕주에서 제조된 와인, 맥주, 증류주, 사과주 등의 마케팅 및 홍보에 대한 업계의 기부금 중 20 퍼센트에 해당하는 300 만 달러 규모의 추가 보조금 프로그램 시작,
- 영업 직원들이 복수의 수제 음료 제조업체들을 대표하여 소규모 수제 음료 제조업체들을 위한 유통을 늘리고, 성장하는 음료 산업에 영업 인력들이 더 많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 제공 허가.

뉴욕의 주류관리법(Alcoholic Beverage Control Law) 현대화: 2016 년 9 월 7 일, Cuomo 주지사는 뉴욕의 80 년 된 구식 주류관리법(Alcoholic Beverage Control Law)을 현대화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조항을 포함하는 법안에 서명했습니다.

- 뉴욕주 전 지역에서 정오부터 오전 10 시까지 일요일 영업 시간 연장,
- 복수의 면허를 보유한 면허소지자의 제조 면허를 중소기업의 문서 업무를 줄이기 위해 하나의 신청서로 결합,
- 와이너리 및 농장 와이너리 재배업체들에게 와인 판매 허가.

술잔으로 판매: 2016 년 9 월 16 일, Cuomo 주지사는 농장 와이너리, 맥주 양조장, 사과주 양조장들이 그들의 생산 시설 또는 생산 현장 외의 분점형 매장에서 술잔으로 제공하는 방식으로 농장에서 만든 일체의 뉴욕산 주류를 판매할 수 있게 허용하기 위한 법안에 서명했습니다. 이전의 법에 따르면, 농장형 제조업체들은 생산 현장에서만 잔으로 생산품을 판매하도록 제한받고 있었습니다.

수제 음료 산업을 지원하는 뉴욕주 리더십의 결과로, 와이너리와 농장 와이너리들의 성장이 세수 증가, 일자리 기회 증가, 농장 제품 수요 증대 및 뉴욕주를 위한 관광산업의 영향 진흥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핑거 레이크스에 위치한 와이너리 100 곳 중 89 곳이 농장 와이너리입니다. 이것은 와인을 생산하는 데 원료로 사용된 모든 포도 또는 기타 과일들이 뉴욕에서 재배되었음을 의미합니다. 또한 주지사의 좋은 와인(Governor's Fine Wine) 법안에 따라 승인된 핑거 레이크스의 농장 와이너리 13 곳이 생산 현장 외의 분점형 매장을 열었습니다.

작년에 핑거 레이크스에 설립된 새로운 와이너리와 농장 와이너리의 전체 목록은 [여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상당한 산업 성장과 이 지역에 대한 관심이 핑거 레이크스의 와이너리들을 와인 전문가들을 위한 국제지도에 등재시키게 됩니다. 핑거 레이크스 와인들은 유럽 및 아시아 국가에서 인기를 끌고 있으며 소규모 가족 소유 기업들이 해외 시장에 제품을 수출하고 있습니다. 관광객들과 이 지역을 홍보하는 여행 작가들을 합쳐서, 미국 전 지역 및 세계 각국의 관광객들과 바이어들이 뉴욕 와인 지역을 방문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매년 500 만 명이 넘는 관광객들이 뉴욕의 와이너리들을 방문하고 있습니다. 2015 년, 핑거 레이크스 여행객들은 이 지역에서 29 억 달러 이상을 지출했습니다. 뉴욕의 와인 생산량은 지난 20 년간 50 퍼센트 이상 증가하여 매년 2 억 병에 이릅니다. 뉴욕이 캘리포니아와 워싱턴 다음으로 미국에서 세 번째로 와인을 많이 생산하는 주가 되었습니다. 뉴욕 와인의 판매 금액은 연간 4 억 2 천만 달러이고 이 산업은 48 억 달러의 경제적 영향을 미칩니다.

뉴욕주 주류관리청(State Liquor Authority)의 Vincent Bradley 청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Cuomo 주지사님의 뉴욕 와이너리에 대한 지원에 따라 불필요한 요식행위 일소를 통해 규제를 완화하고 마케팅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뉴욕주 전 지역 제조업체들의 급성장을 이끌어 냈습니다. 지난 6 년 동안 문을 연 수백 개의 새로운 사업체들은

일자리를 만들어내며 뉴욕주 전체 지역사회에서 경제 개발과 관광 산업을 촉진하고 있습니다.”

핑거 레이크스 포워드(Finger Lakes Forward) 계획의 촉진

오늘의 발표는 굳건한 경제 성장과 지역사회 발전을 창출하기 위한 지역의 종합 청사진인 “핑거 레이크스 포워드(Finger Lakes Forward)”를 보완합니다. 주 정부는 이 계획을 위한 준비작업을 위해서 2012년부터 이미 34억 달러 이상을 이 지역에 투자했으며, 포토닉스, 농업, 식품 생산 및 고급 제조업을 포함하는 주요 산업에 투자해왔습니다. 오늘날 실업률은 대공황 이전 이후로 가장 낮은 수준에 이르렀으며 개인과 기업의 소득세가 낮아지고 기업들은 로체스터(Rochester), 바타비아(Batavia) 및 캐넌다이과(Canandaigua) 등의 지역을 선택하여 성장과 투자의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현재 이 지역은 Cuomo 주지사가 2015년 12월에 발표한 업스테이트 활성화 계획(Upstate Revitalization Initiative)을 통해 뉴욕주에서 제공하는 5억 달러의 투자금으로 핑거 레이크스 포워드(Finger Lakes Forward) 계획을 촉진하고 있습니다. 뉴욕주의 5억 달러 투자는 민간 사업체들이 25억 달러 이상을 투자하도록 장려할 것이며, 제출된 이 지역의 계획에서는 최대 8,200개의 신규 일자리 창출을 추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더 자세한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다음 웹사이트에 더 많은 뉴스가 있습니다: www.governor.ny.gov
뉴욕주 | Executive Chamber | press.office@exec.ny.gov | 518.474.8418